“노년기 4苦 해결, 불교 사찰 역할 중요”

김주현 명예교수, 한마음과학원 심포지엄서 강조

韓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상
노인 고립, 빈곤 등 사회문제 확대
한마음선원 노령사회 역할 조명해
주인공 관법 등 통해 불안감 해소
五共사상 바탕한 공동체 구성 제안
수용전념치료, 마음공부 조명 발표도

안양=신중일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불교 사찰의 역할을 조명하는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김주현 강원대 간호대학 명예교수는 5월 31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2025 한마음과학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고령화사회 노인 관련 이슈와 대처방안’을 통해 고령사회에서 한마음선원의 역할을 제언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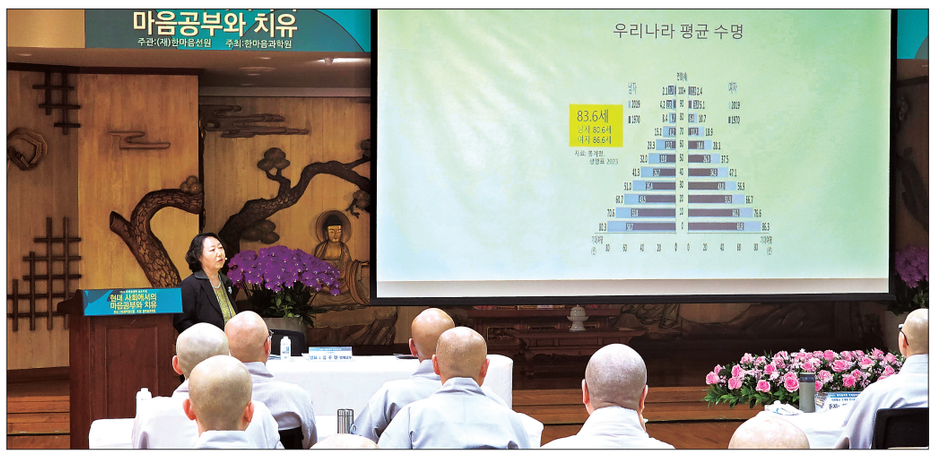
김 명예교수에 따르면 2026년이면 한국사회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노인 부양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김 명예교수는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무위고(無爲苦) △고독고(孤獨苦) △빈고(貧苦) △병고(病苦)를 꼽았다. 할 일이 없어져 집에만 머무니 사회적으로 고립되며 경제적 어려움과 만성질환을 겪으며 높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려면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와 ‘건강한 노년(Healthy Aging)’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게 김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한마음선원 등 불교 사찰이 “고령화사회의 노인들이 직면한 정신적 어려움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마음 치유를 통한 공생(共生)·공심(共心)·공체(共體)·공용(共用)·공식(共食)의 가치 실현과 사회적 연결망 강화 △현대사회 맞는 제례문화 개발 △삶과 죽음 관련 지혜로운 관점 제시 △선법가 활동 통한 심리적 지지 등을 한마음선원 역할로 제안했다.

김 명예교수는 “노인의 종교생활은 삶의 질과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졌다. 특히 ‘모든 존재가 연결됐다’는 부처님의 연기법은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지역별 신도회, 선법가 실버합창단 같은 공동체 활동은 상호 연결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서로를 살피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현 강원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5월 31일에 열린 ‘2025 한마음과학 국제심포지엄’에서 ‘고령화 사회 노인 관련 이슈와 대처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 “대행 선사께서는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이라고 하셨다. 삶의 집착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강조한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주인공 명상 등 수행은 노년기의 불안과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사회에서의 마음공부와 치유’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관련 전문 연구논문들이 대중에 소개됐다.

최훈동 서울대 의과대학 겸임교수는 ‘마음공부와 자기 치유- 붓다의 깨달음을 중심으로’를 통해 ‘니까야’를 현대 정신과학적 관점에서 분석·창안한 ‘숙고명상’을 소개하고 진정한 자기 치유의 길을 제안했다

케너스 펑 토론토대 교수는 ‘수용전념치료와 불교-융합과 분화’를 통해 분노와 번뇌를 수용하고 삶의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에 전념하는 심리치료법인 ‘수용전념치료(ACT,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와 불교의 상관관계를 조명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한마음과학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심포지엄의 의미를 되새겼다.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는 물질계의 50%와 정신계의 50%가 함께 작용해야 모든 것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해 한마음과학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했다. 이 같은 가르침을 받들어 마음의 도리를 밝히는 한마음과학원의 심포지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세계인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 안으로는 한마음을 밝히고 밖으로는 지구적 평화와 안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의상 스님 화엄사상 정수 ‘법성게’ 조명하다

의상 스님 탄신 1400주년 맞아
조계종 · 화엄사, 국제학술대회
‘법성게’가 담아낸 가르침 살펴
의상 스님 日불교 내 위상 조명
‘법성게’ 전통 음률 복원 ‘눈길’


조계종 문화부와 제19교구본사 화엄사는 5월 30일 ‘해동화엄초조 의상 스님 탄신 14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학술대회 발표자와 주최 측의 기념촬영 모습.

해동화엄초조 의상 스님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스님의 가르침과 화엄사상의 정수가 담긴 ‘법성게’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공 스님)와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우석 스님)는 5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해동화엄초조 의상 스님 탄신 14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화엄의 빛 법성게 천년을 넘어 법성의 소리로 살아나다’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의상 스님 탄신 1400주년을 기념해 스님의 대표작인 ‘일승법계도’와 그에 담긴 ‘법성게’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연구 논문들과 일본불교 내 의상 스님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또한 ‘법성게’에 담긴 전통 음률을 중세 일본 쇼묘지 소장 고사본 악보를 바탕으로 복원하고,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AI음원 퍼포먼스와 독송 시연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박보람 충북대 교수는 ‘의상 화엄의 고갱이, 법성게의 이해’를 통해 ‘법성게’의 구성을 분석하고 어떤 가르침을 현대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살폈다.

노로세이 일본 류코쿠대 교수는 ‘일본불교와 의상 대사: 묘에 스님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의상 스님을 가장 존경했던 가마쿠라 시대 고승 묘에 스님을 살피고,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를 조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사토 아츠시 일본 토요대 교수의 ‘일본 쇼묘지 소장 일승법계도; 제사본에 대해’ △윤소희 동국대 교수의 ‘한일 불교의례와 의상대사 법성게 율조의 관계’ △이지선 숙명여대 교수의 ‘일본 쇼묘지 소장 법성게 선율복원에 관한 시론-하카세 악보분석을 중심’ 등이 발표됐다.

신중일 기자

(사)한국불교학회 ‘성운학술상’ 발표

6월 24일 시상식 · 학술대회

(사)한국불교학회(회장 자현 스님)는 6월 4일 “올해 성운학술상 우수상 수상자로 성엽 스님(중앙승가대 박사수료)의 ‘한국불교 염불신앙의 확산과 의미-〈염불보권문〉을 중심으로’와 전혜빈(서강대 박사수료)의 ‘한국불교와 범패의 역사-신라·고려시대 금석문을 중심으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 성운학술상 공모에서는 대상 수상자를 선발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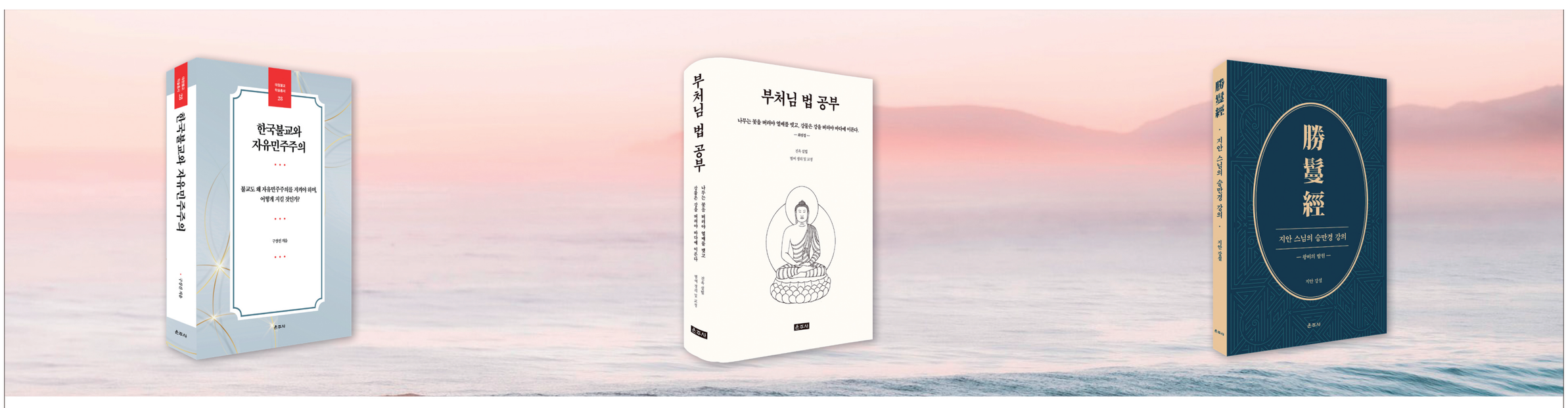
장려상에는 △규은 스님(중앙승가대 박사수료)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 나타난 지눌의 수행론’ △여가 스님(중앙승가대 박사수료)의 ‘좌선 자세의 효과 연구’ △박진영(동국대 박사과정)의 ‘간화선에서 스승의 중요성과 대중화의 문제-선요(禪要)에 나타난 고봉 원묘(高峰 原妙)의 수증(修證) 과정을 중심으로’ △도경 스님(중앙승가대 박사과정)의 ‘조선후기 단독형 약사불도의 신앙적 흐름과 형식적 변화’ △일윤 스님(경희대 박사수료)의 ‘간화선에 대한 인지과학적 해명-예측처리 이론을 중심으로’ △명준 스님(동국대 박사)의 ‘조사선과 간화선의 사제관계를 통한 유기적 수행체계 고찰’ 등이 선정됐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학회는 ‘제8회 성운학술상 시상식 및 성운학술대회’를 6월 24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우수상 수상자인 성엽 스님, 전혜빈 씨와 장려상 수상자인 명준 스님, 여가 스님이 각각 수상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운학술상을 제정한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은 “종교에는 엄연히 신앙과 가피라는 특징이 존재한다”며 “이를 학술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본 상의 취지이며 수상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도, 한국사회에서의 역할은?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이념 과잉에 포획된 시대에, 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불교도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구상진 저/신국판/600쪽/값 33,000원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부처님 법 공부
석천사 진옥 스님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초전법륜의 사성제 법문과 중전법륜의 무상 법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들을 알기 쉽게 설하였다.
진옥 설법, 범여 정리 및 교정/신국판양장/440쪽/값 28,000원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는 경전!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의
『승만경』은 재가자(왕비)인 승만의 발원과 설법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여래장과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굳은 신심을 드러내 보이며, 지안 스님이 간략한 해설을 붙였다.
지안 강설/국판변형/172쪽/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